

통상강국으로 가는 **한걸음** **한·미 FTA**

한·미 FTA,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한·미 FTA, 우리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 전 세계의 61%가 우리의 경제영토가 됩니다.

한·EU FTA 발효에 이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유럽·아시아·북미 3대륙을 잇는
‘FTA 허브 국가’로 거듭납니다.

* 한국의 FTA 체결국 현황

교역액은 2010년 기준 (단위: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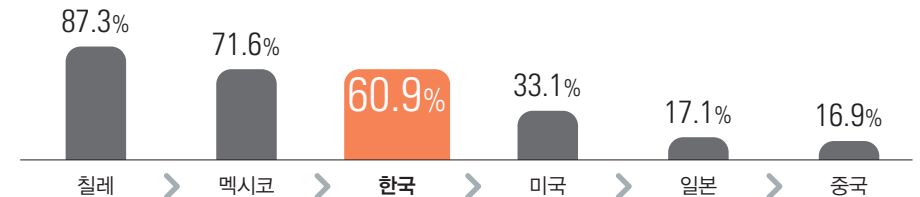
● 발효 또는 타결국가
자료 : 한국무역협회, IMF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으로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경제영토는 세계 경제규모(GDP) 대비 60.9%로 확장되어 경제영토 세계 3위의 국가로 도약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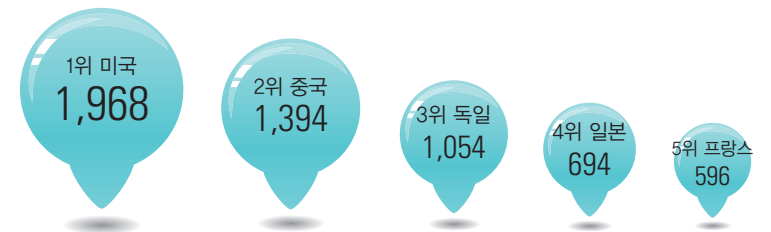
* 주요국 경제영토 추정치(자국 GDP 포함, 발효·체결 기준, 2009년 기준)



✓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더 큰 기회의 창’이 열립니다.

주요 경쟁국(중국, 일본)보다 앞서 1조 9천억불의 세계 최대 미국시장을 선점합니다.

* 세계 수입시장 순위(단위: 10억 달러, 2010년 기준)



(자료 : IMF)

관세인하 효과로 우리 기업들은 경쟁국 기업들보다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Made in Korea’에 대한 이미지가 높아져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증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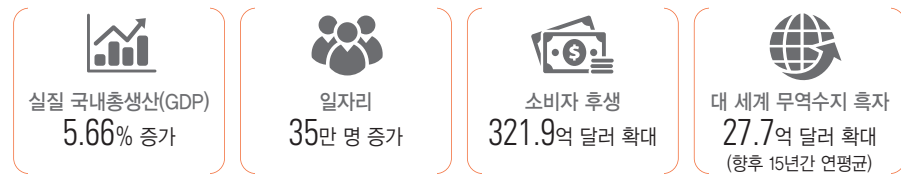
또한 우리 제도와 시스템이 국제 수준으로 선진화되는 계기를 제공하여 기업들의 비즈니스 여건이 개선됩니다.

✓ 일자리가 35만개 늘어납니다.

한·미 FTA 발효 후 우리 경제는 실질 GDP 5.66% 증가, 일자리는 35만개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FTA는 우리가 체결한 FTA 가운데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큼니다.

*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발효 뒤 10년간 증가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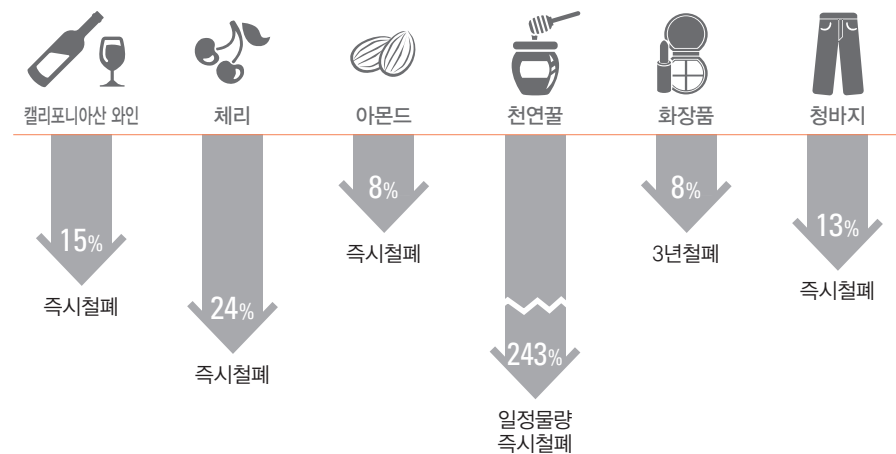
자료 : '11.8월, 10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분석

✓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줍니다.

한·미 FTA로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장바구니 물가로 고민하는 주부들의 근심을 덜어줍니다.

* FTA 이후 낮아지는 미국산 제품(관세인하)



한·미 FTA로 관세가 철폐되는 미국산 제품 (예시)

품목		관세율	철폐 시기
식품	냉장삼겹살, 냉장목살	22.5%	10년철폐
	토마토 주스	30%	5년철폐
	포도즙	30%	즉시철폐
	밀가루	4.2%	5년철폐
과일	오렌지	50%	계절관세
	레몬	30%	2년철폐
	체리	24%	즉시철폐
기호 식품	와인	15%	즉시철폐
	맥주	30%	7년철폐
	아몬드	8%	즉시철폐
	인스턴트 커피	8%	5년철폐
의류 및 화장품	남성 T셔츠	13%	즉시철폐
	향수	8%	3년철폐
기타	비타민	8%	3년철폐

■ 예를 들면, 미국산 돼지고기 냉장목살은 '11.12월 현재 대형마트에서 Kg당 11,000원 수준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관세 22.5%가 완전 철폐되는 시기에는 최종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15%정도 인하된 9,300원 내외로 낮추어질 수 있을 것임.

* 가격인하효과는 관세철폐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타나며, 유통마진 등의 변화에 따라 최종 소비자가격은 달라질 수 있음.



한·미 FTA 주요내용

한·미 FTA는 무역관련 제반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FTA입니다.

*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경쟁, 지적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공산품

양측 모두 5년내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양허를 통해 공산품의 수출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 ✓ 자동차의 경우 양측 모두 승용차·전기차 5년 철폐, 자동차 부품 즉시철폐, 타이어 5년 철폐에 합의

* 한국 : 관세 8%가 발효즉시 4%로 인하, 나머지 4%는 4년간 유지한 후 철폐
미국 : 관세 2.5%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후 철폐

농산물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를 확보했습니다.

- ✓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제외(쌀 및 쌀 관련 제품),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포도 등),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돼지고기, 고추, 마늘 등 30개 품목) 등 예외적 취급과 함께 15년 이상의 관세철폐기간을 확보

서비스분야

선택적 분야를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 ✓ 공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
- ✓ 국내 전문직 서비스(법무·회계·세무)는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이므로 단계적(법률 3단계, 회계·세무 2단계)으로 개방
- ✓ 저작물 보호기간의 연장(50 → 70년) 등 지적권 보호를 강화
-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필요한 건전성 조치는 언제나 시행이 가능

FTA 국내보완대책 한층 더 강화됩니다!

농어업 등 취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FTA 국내보완대책을 강화했습니다.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FTA 종합대책 성격의 'FTA 국내보완대책'을 2007년 수립하여 시행중

또한 그간의 농수산업 환경 변화를 감안, 기존 대책을 수정·보완한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2011년 8월 19일 발표

• 재정지원의 확대 : 21.1조원 ⇒ 22.1조원

농어민 수요가 많은 축사시설 및 과수·원예시설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규모를 확대

• 피해보전제도의 강화

(피해보전직불금 발동기준) 평균 가격 대비 80% 이하 하락시 ⇒ 85% 이하 하락시
(보전비율) 당해연도 가격과 기준가격 차액의 85% ⇒ 90% 보전
(시행기간) 발효 후 7년 ⇒ 발효 후 10년(2021.6.30일까지)

• 농어업 체질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병행

(제도개선) 농어가 신용보증제도 개선(한도 10억 ⇒ 30억), 임차농 보호제도 마련 및 농어업 재해보험 보장 품목 및 범위 확대 등

(세제지원) 면세유 공급 기한 연장(2012.6.30 ⇒ 2015.12.31) 및 대상기종 추가, 농어업 기자재 부가세 과세 특례 확대, 농식품투자조합 세제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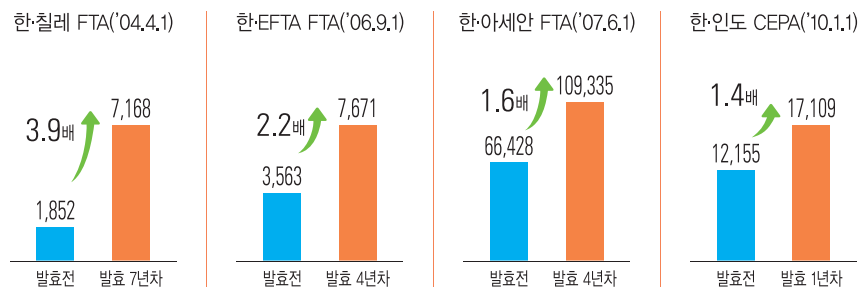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추가대책을 논의해 왔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FTA 발효 이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발효된 FTA 체결국들과의 교역규모가 증가하고,
피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발효이후 FTA 체결국과의 교역규모가 증가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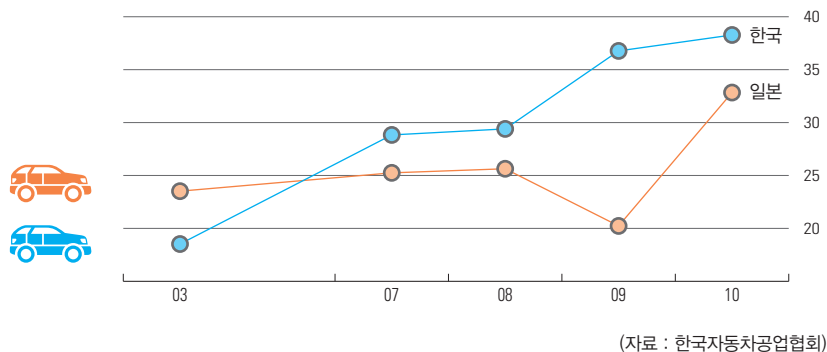


한·칠레 FTA 발효 7년의 성과

자동차 강국인 일본을 제치고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010년 자동차 수출은 11만 2천대로 발효 이전 대비 약 5배 증가하고,
칠레에서의 자동차 시장점유율도 18.8%에서 39%로 증가

칠레 자동차 시장 점유율 동향 단위 : %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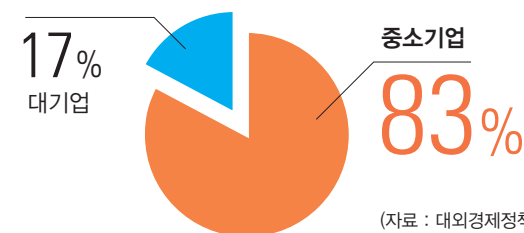


한·칠레 FTA 발효 7년의 성과

신규 진출한 중소기업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FTA 발효 이후 7년간 칠레 시장에 진출한 신규 기업에 의한
수출액 39억달러 중 중소기업이 32억달러를 차지

칠레 진출 신규 기업 수출액 비중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는 당초 우려와 달리
미미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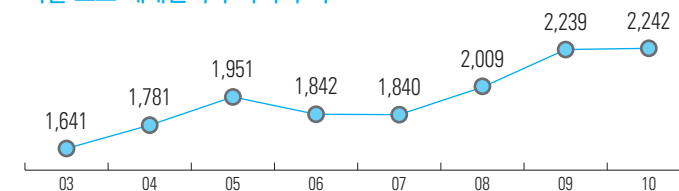
시설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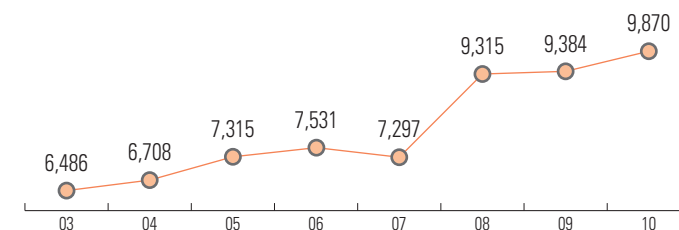
국내 농가가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와 달리
포도 가격은 상승하고, 시설 포도의 재배면적도 증가

시설 포도 재배면적과 가격 추이

재배면적
단위 : ha



가격
단위 :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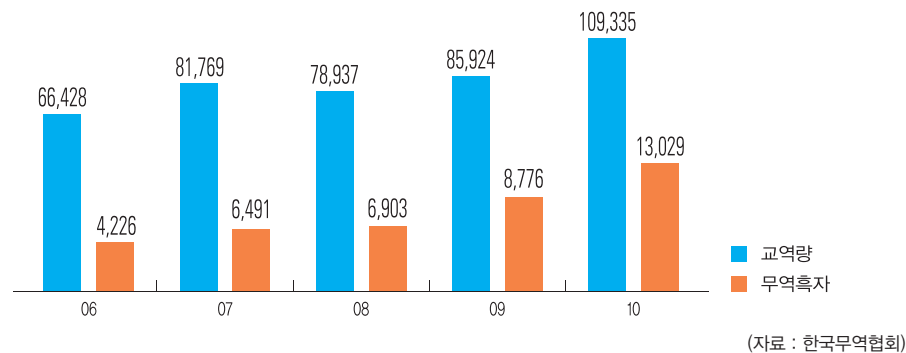


한·ASEAN FTA 발효 4년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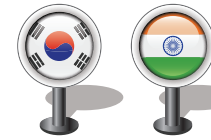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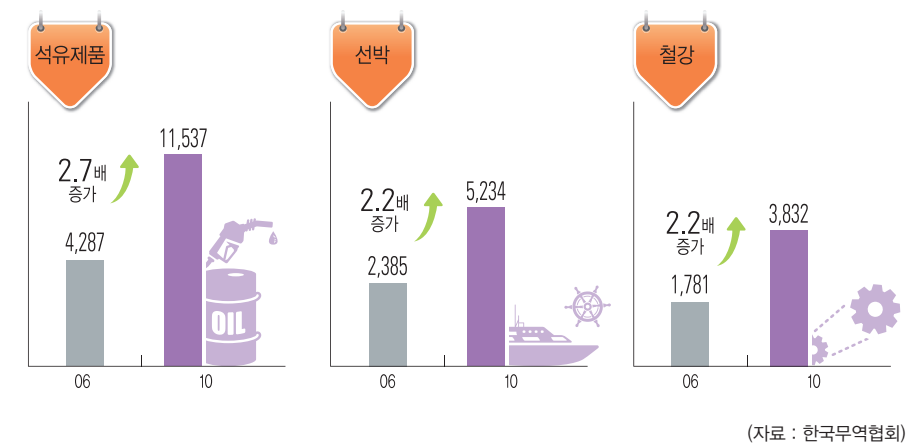
석유제품, 선박, 철강 등의 수출이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FTA 발효(2007.6.1) 이후 지속적인 수출 증가에 힘입어 무역흑자도 꾸준히 확대되었으며, 특히 석유제품, 선박, 철강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

한·ASEAN 양 지역간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달러



對ASEAN 상위 수출품목 현황 단위 :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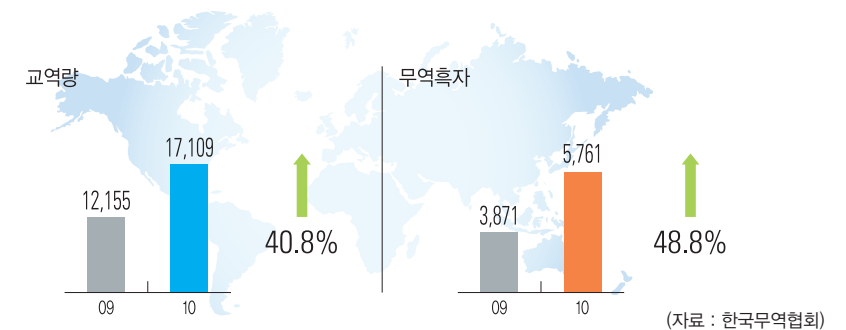


한·인도 CEPA 발효 1년의 성과

발효 1년만에 무역흑자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CEPA 발효(2010.1.1) 이후 對인도 교역 규모는 1년만에 40.8% 증가 하였으며, 무역흑자도 발효 전에 비해 19억달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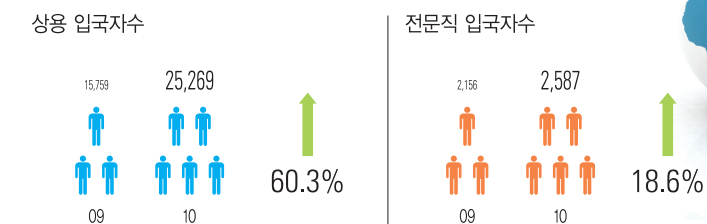
한·인도 CEPA 양국간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달러



다양한 인적·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양국간 교역확대에 따라 인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상용 입국자수는 25,269명으로 발효전에 비해 60.3% 증가, 서비스부문의 전문직 입국자 수는 2,587명으로 18.6% 증가

한·인도 인적교류 현황 단위 : 명



* 2010년은 추정치

** 상용 입국자: 단기상용, 단기취업, 산업연수, 상사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목적

*** 전문직 입국자: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연구, 기술자(IT업계, 기계기술), 교수 등

트위터로 알아보는 한·미 FTA에 대한 궁금증 20문 20답

ISD ▾

공공요금 및 민영화 | 농업 | 의료·복지 | 경제효과 | 소비자 | 일자리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ISD가 도입되면 사법주권이 훼손된다?

우리 사법주권은 그대로 유지 되지요.

우리가 기체결한 8개 투자협정과 2500여개 전세계 투자협정들은 모두 사법 주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ISD는 우리에게 불리하다?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기업의 우리나라 투자보다 3배 이상 많아요. ISD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제도이지요. 해외투자를 많이 하는 우리 기업들이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성명도 발표했어요.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이 침해 받는다?

정부의 정당하고 비차별적인 정책은 ISD 제기 위험이 없어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은 협정의 적용을 배제한다거나, 교육·에너지 등 44개 분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부권한을 유보하는 등 협정문에 우리 공공정책의 자율권을 명시하고 있죠.



ISD 중재판정은 미국에게만 유리하다?

전세계 147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은행 산하의 ICSID(국제투자 분쟁해결센터) 등 전문성과 중립성을 가진 국제기구가 중재절차를 수행해요. 미국의 승률도 높지 않아요. 실제 미국기업이 제기한 108건 중에 승소는 15건에 불과하고 패소는 22건이나 돼요.



한·미 FTA로 볼리비아처럼 물값 폭등한다?

1998년 볼리비아에서 물값이 많이 오른 적이 있지요.

그 원인은 투자협정에서 볼리비아 정부가 수도요금 결정 권한을 포기 했기 때문이지요. 이를 우려하여 한·미 FTA에서는 정부의 수도요금 결정 권한을 보장해 놓았어요. 물값이 상승할 이유는 전혀 없지요.

ISD

공공요금 및 민영화 ▾

농업 | 의료·복지 | 경제효과 | 소비자 | 일자리



한·미 FTA가 발효되면 정부가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규제할 수 없다?

한·미 FTA 발효 후에도 정부가 전기, 가스, 수도 요금 결정 권한을 지금처럼 갖고 있죠.



공기업들이 민영화 될 것이다?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은 한·미 FTA로 달라지지 않아요. 공기업 민영화는 우리 정부가 결정하는 거죠.

ISD | 공공요금 및 민영화

농업 ▾

의료·복지 | 경제효과 | 소비자 | 일자리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안보가 흔들린다?

한·미 FTA에서 쌀은 제외되었어요. 따라서, 한·미 FTA로 쌀이 개방 되었다거나 식량안보가 흔들린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요. 쌀 농가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보조금도 지금처럼 변함없이 유지될 거예요.



우리의 농축수산업이 무너진다?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도 쌀은 제외하였고, FTA로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15개 품목은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등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어요. 더욱이, FTA를 대비하기 위해 2008년부터 FTA 국내보완대책을 이미 추진했죠.



농축수산물분야 지원대책이 미흡하고 기존 내용으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한·미 FTA에 대비해 21.1조원 규모의 FTA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하여 2008년부터 지원 중이에요. 2011년 8월에는 기존대책을 수정, 보완하여 지원규모를 22.1조로 확대하였고, 재정지원과 세제지원도 확대하는 등 충분한 지원을 위해 노력중입니다.

**한·미 FTA로 인해 약값이 상승한다?**

현재 우리 건강보험제도에 따르면 신약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와 협상으로, 복제약 가격은 신약 가격의 일정비율로 결정되는 구조지요. 한·미 FTA로 약값이 폭등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영리병원이 허용되는 것 아니냐?**

한·미 FTA와 영리병원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에요. 한·미 FTA 이전인 2003년부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제한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였지만, 이 경우에도 의료법 등 관련 국내법규를 위반할 때는 제재와 취소가 가능해요.

**정부의 FTA 효과 예상 다 빗나갔다. 온통 장미빛이다?**

발효 중인 FTA의 수출증대 효과는 그 동안의 대세계 수출증가율보다 대체로 크지요. 한편, 한·칠레 FTA의 경우 FTA가 체결되면 국내 포도농가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국산 포도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고 재배 면적도 증가했지요. FTA 효과, 우리가 하기 나름이죠.

**한국의 평균관세율이 미국보다 훨씬 높은데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미국은 우리의 15배인 세계 최대 시장이고, 세계 각국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으므로 소폭의 가격인하만 발생해도 우리 수출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거예요.

**한·미 FTA로 중소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이 확대된다?**

한·미 FTA로 인해 관세율이 인하되면 자동차 부품, 섬유 등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돼요. 이와 더불어 대미 수출이 증가하는 대기업 납품을 통한 간접수출 증대 효과도 기대되구요. 우리 중소기업이 발효를 기다리는 이유죠.

**한·미 FTA로 소비자 혜택이 풍성해진다?**

삼겹살, 치즈, 감자, 포도 등 미국산 농축산물의 관세가 철폐되면 보다 저렴해진 가격으로 선택폭이 넓어져 소비자 혜택이 풍성해져요. 미국산 생삼겹살 관세 22.5%, 미국산 치즈 관세 36%가 점진적으로 철폐되고, 또한 캘리포니아산 와인 관세 15%는 즉시 철폐돼요.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도 관세혜택을 본다?**

미국산 건강기능식품(비타민)이 3년 후 관세 8%가 완전 철폐되면 온라인을 통해 훨씬 저렴하게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돼요. 또한 의류에 부과되는 13%와 핸드백에 부과되는 8% 관세가 철폐되어 동일하게 관세 혜택을 볼 수 있어요.

**한·미 FTA로 자동차의 세제부담이 경감된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 관련 세제부담이 대폭 경감돼요.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현재 5단계로 되어 있으나, 한·미 FTA가 발효되면 3단계로, 자동차 구입시 부담하는 개별소비세도 3단계(0~10%)에서 2단계(0~5%)로 단순화되고 세율도 낮아져요.

**한·미 FTA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해소에 도움이 된다?**

FTA 체결국간에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없어져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이 크게 확대돼요. 이를 통해 경제성장의 가속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해외 투자도 증대되면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돼요.

**한·미 FTA로 서비스 및 제조업 일자리가 창출된다?**

지식기반 업종인 금융, 보험, 컨설팅, 방송 등 서비스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뿐만 아니라 FTA 관세철폐효과를 톡톡히 보는 제조업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약 8만2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요.